교회소식

- 1.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교인등록카드를 작성해 주세요. 생일: 전아름(7/21), 강승리(7/26)
- 2. 지난 주 제직회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8/11 창립2주년 예배는 야외예배로 드려집니다. 친교 후 준비모음
- 3. 어린이교회 미팅 예배 후 (창립 2주년 예배준비)

| 지난 주 통계 | | |
|---------|----------|--|
| 주일 헌금 | CD \$96 | |
| 감사 헌금 | CD \$700 | |
| 십일조 헌금 | CD \$90 | |
| 장년 출석 | 21명 | |
| 어린이 출석 | 20명 | |

함께 떡을 떼며 서로 발을 씻겨주는 다트머스 한인교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로마서 4:20~22

담임목사: 김 승 용

교회주소: 50 Ritcey Crescent Cole Harbour, NS B2W 6J8

연락처: 1-902-746-3566, mahanaim0904@gmail.com

www.dartmouth-k-church.com

주일 예배 순서

| 여는 기도 | | 김승용목시 |
|--------|--------------|-------|
| 찬양 | | 다함꺼 |
| 성경봉독 | 눅 8:5-15 | 김승용목시 |
| 어린이설교 | 하나님 나라의 비밀 | 김승용목시 |
| 대표기도 | | 김승용목시 |
| 성경봉독 | 롬 4:18-25 | 다함께 |
| 설 교 | 긍정의 힘이 아닌 믿음 | 김승용목시 |
| 교회소식 | | 김승용목시 |
| 결단의 찬양 | | 다함께 |
| 축 도 | | 김승용목시 |

(어린이교회) 누가복음 8:5-15

- 5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 가에 떨어지때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 6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지매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 7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매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 3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나서 백 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 9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 10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 11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 12 길 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뼈 앗는 것이요
- 13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 14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로마서 4:18-25

- 18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하심이라
- 19 그가 백 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 20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 21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 22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 23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 24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 25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목회자 칼럼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긍정적인 성격의 사람이 매사에 더욱 좋은 것을 누린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럼 믿음의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일까요? 부정적인 사람일까요? 우리는 당연히 긍정적인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북미의 사람들이 하는 큰 착각 중에 하나가 자신들의 머리 속에 존재하는 우주적인 신적 존재 "GOD"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초월적 존재)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데에는 어려움을 느낍니다. 더 나아가 자신은 그러한 초월적 존재를 믿는 자로서 긍정적인 태도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신앙인이라고 여기며 자신의 신앙심과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동일시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무척이나 안타깝지만 그들은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믿음은 무엇일까요? 민수기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좋지 않은 보고를 하였고 2명의 정탐꾼은 긍정적인 보고를 하였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렇습니다. 12명 모두 객관적으로 정탐을 잘 마치고 돌아와서 꽤 정확한 보고(민13:26-29)를 하였습니다. 긍정적인 시각, 부정적인 시각이 아니라 그들은 모두 객관적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문제는 그 후에 있습니다.

믿음은 결코 단순한 긍정적인 마인드로 세상을 바라보는 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은 현실에 대한 무척이나 객관적인 평가, 더 나아가 부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성경은 세상을 핑크빛으로 바라보는 동화책이 아님을 금새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죄악이 가득 차 있으며 심지어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을 십자가에 죽여버리는 세상임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 단순히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믿음의 사람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는 모습입니다. 오히려 죄악의 세상 속에 타협해 버린 사람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믿음은 결코 현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않는 믿음을 우리는 맹신이라고 합니다.

민음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의 믿음을 로마서에선 예를 들어 설명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자신과 사라가 아들을 낳기에 이미 늙었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았음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리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의 근거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처한 상황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하였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 이야기도 똑같습니다. 12명 모두 좋은 땅이지만 결코 쉽게 함락되지 않을 땅이라는 것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갈 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여 그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었고 10명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 두려움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민음은 현실 속에 뿌리받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자고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의 현실이나 내 자신에 대한 긍정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에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관점이나 마음의 상태나 각오가 아닌, 내 삶의 형편이나, 주위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내 형편과 상황이 아무리 암물하다고 하더라도, 그 길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것에 우리가 긍정의 힘을 쏟아 붓고 상황과 형편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곳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는 사도바울을 주변의 모두가 말립니다. 예언의 은사가 있는 이가 사도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옥에 갇히고 고난을 당하게 됨을 이야기하며 말립니다. 그런데 사도바울의 반이 응이 놀랍습니다. 사도바울은 자신도 돌아가면 고난이 기다림을 압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더 현실을 냉정하게 파악하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는 돌아가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약속(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것이라는)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오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단순히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삶이 치열하고, 어렵고, 우리의 발을 무겁게 만드는 날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런 날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무너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긍정적이라서가 아니라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내일로 우리의 발을 옮기는 자들입니다.

Lord I Lift Your Name On High



주께서 높은 보좌에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원제:왕되신 주 앞에) Offering



Copyright (c) 2003 Integrity's Hoxanna Music. Adm. By CopyCare Korea. All rights reserved. Used by Permission.

Translated by EZ Worship. Approved by CopyCare Korea.



Lord I Give You My Heart

Reuben Morgan

http://cafe.daum.net/5829749















JESUS MY SUPERHERO

He's the one who makes the sun shine He's the one who that puts the moon in the sky

He's the one who hung the stars One by one He's the one who makes the birds sing He's the one who makes your dreams so high He's the one who makes me smile Day by day

Jesus you're my superhero You're my star, my best friend
Jesus you're my superhero You're my star, my best friend

Better than Spiderman Better than Superman Better than Batman Better than anyone Better than Yu Gi Yo Better than Barbie Better than Action Man Better than anyone

내안에 부어 주소서 내 안에 - 부어 주 소서 -성 령의-충만한 기 름을 -내 안에-충만케 하 소서 -성 령의-기름으로 -내게기-름 가득할-때 주의복-음전할수있-네-내게기-름 가득할-때 주의사-랑베푸네 우리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때에 -

기름 준 - 비된 자만이 - 잔치자리들-어가네 -